

법 어

국화향기 더하는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 신행문화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창립 5주년 대법회와 영산재를 봉행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신심 자비로운 나눔 함께하는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창립 5주년의 결실을 맺겠다는 마음을 내신 도선사주지 혜자스님과 청담 문도회, 108산사순례기도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8산사순례기도회 창립 5주년 기념 대법회와 영산재를 봉행함은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뿐 아니라, 호국불교의 전통과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속에서 호국 불교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내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었듯이, 현재의 우리 불교 역시 문화포교, 나눔의 실천 등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는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단은 자성과 쇄신을 위한 수행 · 문화 · 생명 · 나눔 · 평화의 5대 결사를 통해 대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불교중흥의 기회로 삼고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8산사순례 기도회가 민족문화수호와 자성과 쇄신 결사에 진중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평화와 평등,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에서 전법행을 실천하는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성지순례와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산촌, 어촌의 지역민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사찰주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 또한 크게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108선묵장학금 지급, 다문화가정 108인연 맺기, 선묵 108효행상 시상, 군장병에 간식거리 제공, 약사여래 108보시금 지급 등 108선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자리에 계신 선묵혜자 스님의 원력과 회원들 한분 한분의 신심이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선행은 곧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화현인 것입니다.

금강의 서원과 불퇴전의 용기로 정진하는 우리 앞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할 것임을 확신하며 포교의 새장을 여는 108산사순례기도회, 자비로운 나눔을 통해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되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리라 믿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심을 간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일에 108산사순례 기도 회원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사회는 불국정토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창립 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불교의 위상을 제고 시키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불보살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불기2555년 10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